

영어와 한국어 시사용어의 의미 대조 연구

주진국
(계명대)

1. 서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 바라본다(박재양 267). 한 세계는 실제 혹은 가상적 세계의 사물 및 사고의 세계인 기의(signifié)의 세계이고, 다른 한 세계는 그러한 사물과 사고에 대한 명명 체계로 이루어지는 기표(signifiant)의 세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언어가 지시하는 실제 또는 가상의 세계와 그 세계를 구성하는 유무형의 대상물들과 관련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개념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이라는 문화 간, 언어 간 의사소통의 매개 행위를 통해 메시지 발신자의 소통 의도를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메시지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언어 공동체가 그러한 실제 혹은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사고, 인식과 이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데 기인할 것이다. 반면, 언어 공동체 또는 문화권에 따라 이러한 사물, 사고, 인식을 명명하는 방식과 체계가 상이할 수 있어 번역의 난점과 문제점이 초래된다. 기호

(signs)가 관습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며, 특정 언어 공동체에 특유한 것이기 때문이다(김현권 43). 따라서 번역자가 서로 다른 언어 체계가 드러내는 언어 사용자의 관점과 이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중개에 있어 양 언어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봐야 할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한국어와 영어 시사어구 몇 가지를 선정하여 상호 대응어¹⁾의 의미와 형태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어구의 쌍은 서로 단순한 축어적 번역어(literal translations)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어구와 중심의미²⁾는 다르지만 동일한 사물이나 개념을 지시하는 어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축어적 번역은 뉴마크(Newmark 70)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시물(referent)과 화용적 효과(pragmatic effect)가 등가적인 경우, 즉 단어들에 동일한 ‘사물’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상효과를 야기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역시 뉴마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살펴 볼 어구들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맥의 영향을 덜 받으며, 거의 모든 번역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상호 치환될 수 있는 상대어들이다.

언어학의 연구 영역이 문장을 넘어 텍스트 단위로 이동하면서 번역과정에서의 텍스트 분석은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예컨대 텍스트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을 고려한 개념인 ‘맥락적 초점(contextual focus)’과 텍스트 타입(text type)을 번역상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발점으로 강조한 하티姆과 메이슨(Hatim and Mason)과 번역 스키포스(skopos)와 텍스트의 기능을 번역과정의 핵심적 요소로 파악하는 노르트(Nord)

- 1) 본고에서 ‘대응어’라는 술어는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윌리엄스와 체스터먼(Williams & Chesterman 50)이 구분한 ‘대응(correspondence)과 등가(equivalence)’ 개념에서의 ‘대응’과 다르며, 통상적으로 주어진 번역 맥락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상호 치환될 수 있는 상대어(counterpart)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심재기와 채완은 ‘중심의미’ 또는 개념적 의미를 그 단어 자체의 지시적 기능에 의해 스스로 보유한 의미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명한다. 예컨대 ‘소나무’라고 할 때 국어 화자들이 추론해 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며 핵심이 되는 인식의 집합체가 중심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심재기와 채완의 의미 유형 구분에 따라 중심의미라는 술어를 사용한다(18).

등은 모두 이러한 견해를 대변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번역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용어의 의미와 여기에 드러난 언어 사용자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해 번역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이 등장한 개념을 반영하는 번역어의 조어(造語)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언어와 인간의 경험세계, 그리고 번역

언어에는 언어 사용자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과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는 언어 사용자의 인식이 투영되어 나타난다. 언어가 언어 사용자의 경험 세계에 구조를 부여하며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헬리데이(Halliday) 143). 필모어(Fillmore)는 특정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우리의 문화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어의 의미를 기술함에 있어 구조화된 범주의 체계(structured system of categories), 즉 ‘프레임(frame)’ 하는 역할을 설명하려 하였다(118). 이들 학자의 말을 통해 언어가 결국 경험 세계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인식의 범주를 반영하고, 따라서 언어 사용자의 사고 및 행동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사고와 언어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예로서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대표적인 이론인 사피어(Sapir)와 워프(Whorf)의 가설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사고에 미치는 언어의 ‘전적인 영향’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이 언어 사용자의 경험 세계가 그 언어와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어떤 정도로든 연관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언어는 문화와 제도 그리고 규범과 관행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경험 세계를 구조화, 조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경험의 연속체(continuum of experience) (베이커(Bake) 18)를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이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예컨대 동일한 지시물을 지시하는 두 언어 공동체의 두 어휘가 서로 축어적 번역어로서 주어진 번역 맥락에서 무조건적으로 상호 대체 및 치환될 수 있는 경우라도 이 두 어휘가 실제로는 동일한 실재(reality)를 표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번역학에서 ‘등가(성)’에 내재된 개념적 모순을 지적하고 번역손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예컨대 정연일은 시민운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한국에서 ‘시민문화’라는 표현과 성인의 80퍼센트가 시민단체의 자발적 회원인 스웨덴의 ‘civic culture’가 번역에서 대응될 때 상당한 수준의 손실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122).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언어 공동체에서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어휘의 쌍은 그 ‘원형적 사용(prototypic use)’³⁾에 있어서는 대개 일치하거나 동일할지라도 뉴마크가 언급하는 ‘화용적 효과’가 동일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언어 사용자의 인식의 범주가 상이하고 언어 사용자의 경험 세계에서 해당 언어가 가리키는 지시물이 갖는 중요성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우나(sauna)’가 국민들의 중요한 삶의 방식을 이루고, 관광지는 물론 가정집, 기업체 건물, 그리고 심지어 국가의회에도 사우나가 있는 핀란드에서 사용하는 어휘인 ‘sauna’와 한국어의 ‘목욕(탕)’ 혹은 외래어로서 사용되는 ‘사우나’라는 어휘는 분명 ‘몸을 씻는 일’이라는 원형적 의미영역을 공유할 뿐이다. 반면,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장소, 그리고 행위에 수반되는 재료와 행위의 방식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친근한 손님을 자택의 사우나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사우나’의 부차적인 사회적 기능은 그러한 행위가 갖는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의미의 차이를 불러온다.

결론적으로 흔히 동일한 사물이나 개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서로 다른 언어의 어휘들은 그 원형적 의미영역만을 공유할 뿐 그 주변 영역에 있어

3) 필모어(118-19)는 어떤 어휘가 사용될 때 그 배경 상황(background situation)의 조건들이 원형(prototype)에 어느 정도 부합될 때의 어휘 사용을 원형적 사용(prototypic use)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필모어가 소개하는 ‘breakfast’의 제도적, 관행적 조건은 우리가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대에 한다는 것, (‘breakfast’가) 하루의 이른 시간대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면을 취한 후에 하는 식사라는 것, 그리고 (‘breakfast’가) 어느 정도 특정한 식단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모국어 화자는 이러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필모어가 주장하는 바는 어휘가 사용되는 현상을 관찰해 보면 해당 어휘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의 범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주는 해당 어휘의 원형적 사용이 갖는 다각적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사용어 중에는 축어적 번역어 외에도 동일한 개념을 지시하면서도 어구를 구성하는 어휘들의 기능과 의미가 영어와 한국어 용어 간에 상이하여 용어의 중심의미와 의미영역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대응어들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에는 지시물을 바라보는 언어 사용자의 관점이 반영된다. 따라서 번역 학습자는 흔히 사전으로 대표되는 단어의 원형적 의미와 지시물이 의미의 전부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래에서 살펴 볼 영어와 한국어 시사용어들의 쌍은 서로 축어적 번역어의 관계에 있거나 축어적 번역어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들과, 영어 용어가 지시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새로이 조어된 용어들을 포함한다.

3. 영어와 한국어 대응어의 의미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

3.1. 병렬 구조의 어순 차이

심재기와 채완에 따르면 병렬의 어순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요성이 큰 쪽을 앞세우는 것이며 어떤 의미자질을 가진 쪽이 더 중요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각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다(280). 아래 예1에서는 한국어에서 문법적으로 동등한 두 요소가 병렬 구성을 이룰 때의 관습적 어순을 보여주고 있다.

예1)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1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했다.4)

민간부문과 정부로 구성되는 단체나 이러한 주체들의 공동 활동을 나타내는 용어들, 즉 예컨대 ‘민관협력체계,’ ‘민관합작법인,’ ‘민관합동조사단,’ ‘민관합동수상구조훈련’ 등의 용어에서 위와 같은 어휘 조합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심재기와 채완은 ‘군관민(軍官民)’이 ‘민관군’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것

4)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58152

이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의 퇴조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287). 심재기와 채완은 이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가까운 편이 병렬에 있어서도 앞서는 현상으로 설명하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제 치하에서 ‘일청전쟁’과 ‘일로전쟁’으로 불렸던 사실을 환기시킨다(284). 반면에 ‘민관합동위원회’의 영어 대응어는 ‘a joint committee of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혹은 간단히 ‘(joint) government-private (sector) committee’로서 민간보다는 정부가 앞에 나오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government-private sector partnerships,’ ‘experts from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academia,’ ‘government and private security experts’ 등 ‘government’와 ‘private sector’가 병렬 조합을 취하지 않고 열거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적용된다.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구조와 가치개념이 포함된 경우는 ‘북미관계/U.S.-North Korea Relations’나 ‘한미동맹/U.S.-South Korea Alliance’ 같은 용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북미관계’는 과거와 달리 북한이 미국에 앞서 나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영어 표현의 경우 ‘U.S.’가 앞에 오는 경우가 많다. ‘한미동맹’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중요하며,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우선시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아래의 예2는 기능적으로 대등한 어휘가 병렬될 때 어순의 고정 여부에 있어 영어와 한국어 대응어가 대조를 이루는 예이다.

예2)

- a: 산학협력/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 businesses and universities), business-university collaboration (= university-business collaboration)
- b: 내구소비재/durable consumer goods (= consumer durable goods, consumer durables. durable goods for consumer use)

위 예 a에서 산업체와 대학교 간의 협력을 뜻하는 ‘산학협력’의 경우 한국어에서 ‘학산협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데 반하여, 영어에서는 ‘university-business (industry) collaboration’이나 business (industry) -university collaboration’을 함께 사용한다. 위 예의 b와 같이 가구나 자동차처럼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소비재를 의미하는 ‘내구소비재’ 역시 ‘소비내구재’라는 용어는

한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반면, 영어의 경우 ‘durable consumer goods’와 ‘consumer durable goods’가 모두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경우에만 ‘소비재’라는 중심적 의미에 ‘오래 견디는’이라는 한정어가 가미된 형태만 사용된다.

한편 아래 예3은 북반구의 선진 공업국과 남반구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에서 생기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남북문제’와 남한과 북한을 함께 부르는 말인 ‘남북한’ 역시 한국어와 영어의 병렬 구성이 차이를 보이는 예이다.

예3)

a: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s

b: 남북한/North and South Korea

이와 같은 예는 한국어에서 꼭 남쪽 혹은 남한이 먼저 와야 한다는 가치 개념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방위를 ‘동-서-남-북’의 순으로 표현하는 우리말의 관습과 정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 예4와 같이 『콜린스영영사전』에 수록된 ‘동서남북(cardinal points)’의 의미를 통해 영어에서는 ‘북-남-동-서’의 순서로 방위를 열거함을 알 수 있다.

예4)

The cardinal points are the four main positions of the compass, north, south, east, and west.

방위를 표현함에 있어 영어는 ‘northwest,’ ‘southeast’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rth’와 ‘south’가 방위의 기준이 되는 반면 우리말의 정서는 ‘서북’과 ‘동남’이 더 우선적이다. 이와 같이 언어 공동체의 언어 습관과 정서, 그리고 그 구성원이 느끼는 중요성에 따라 어순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2. 번역어의 유표적 언어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한국어 번역어 혹은 영어 용어에 대한 한국어 대

응어 중 유표적 연어(marked collocation)의 구성이 두드러지는 예들이다.

예5)

국제 곡물가격 불안과 기상이변 등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했다.⁵⁾

위 예에서 ‘식량안보’는 ‘food security’의 번역어로서 비통상적인 어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new image) (베이커 61)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통상적인 맥락에서 ‘식량’은 ‘증산,’ ‘획득,’ 혹은 ‘확보’의 대상이지 외부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할 대상은 아니다. 정치 혹은 군사적인 맥락에서 사용될 때 ‘안보’는 ‘편안히 보전함, 또는 안전보장, 즉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⁶⁾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는 ‘국방,’ ‘군사,’ ‘안전’과 관련한 연상 의미를 가지며, ‘의식,’ ‘태세,’ ‘불감증’ 등 어휘의 앞에서, 혹은 ‘국가’의 뒤에서 연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영어 대응어인 ‘food security’에서 ‘security’의 동사형 및 형용사형인 ‘secure’의 의미는 『콜린스영영사전』에 따른 아래 예6의 원형적 의미와 같이 ‘확보하다’ 혹은 ‘획득하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형용사형은 ‘안정되다’에 가깝다.

예6)

a: If you secure something that you want or need, you obtain it, often after a lot of effort.

b: If you secure a place, you make it safe from harm or attack.

c: If you describe something such as a job as secure, it is certain not to change or end.

위 예의 a, b, c에 해당하는 예로는 각각 ‘to secure water resources,’ ‘a strategy to secure homeland,’ ‘a secure job position’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들로 볼 때 ‘to secure + food’의 구성은 ‘food security’와, 그리고 ‘a

5)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02133225&code=92050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secure + job'은 'job security'와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위 예 a와 b를 통해 '식량을 확보하다'에서는 a의 의미의 'secure'가 적절한 반면, '식량안보'는 b의 의미가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to secure food'가 '외부의 위해나 공격으로부터 식량을 안전하게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확보한 식량을 예컨대 전란이나 폭동 등의 이례적인 상황에서 약탈 등에 대비해 지킨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어의의 조합은 'a secure job'과 'job security'가 일관되게 비유표적 구성인 '안정적 직업'과 '직업 안정성'으로 번역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결론적으로 'food security'에 대응하여 '식량안보'가 사용됨으로써 '식량'은 가까운 미래에 식량 부족을 야기하게 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외부적 요인들로부터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내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포적 의미는 '핵안보/nuclear security'의 중심의미를 연상시킨다. '핵안보'는 핵테러(nuclear terrorism)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급(weapons-grade)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여기에서 '안보'는 이 어휘의 원형적 의미에 가깝다. 이러한 '안보'의 원형적 의미가 사용됨으로써 '식량안보'는 식량 문제를 더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유표적 구성은 복합형용사 'food-secure'를 번역할 경우 무표적 구성으로 전환되어 '식량안보'의 원형적 의미가 상실 또는 약화될 수 있다. 아래 예7은 한 해의 매체가 웹(web)에 게시한 표제와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예이다.

예7)

- a. Gov't secures agriculture for food-secure future⁷⁾
- b. 정부, 식량이 안전한⁷⁾ (혹은 식량이 확보된³⁾) 미래를 위해 농업 보호...
- c. 정부, 미래의 식량안보 위해 농업 보호...

위 예에서 동사 'secure'의 대응어인 '보호'는 '안보'의 원형적 사용에 가까우며 '농업'과 비교적 자연스러운 연어를 이루지만, 역시 '안보'의 원형적 의미에 근접한 '식량이 안전한'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식량이 확보된'은 의

7) 필리핀 『인콰이어러뉴스(Inquirer News)』紙 <http://newsinfo.inquirer.net/16116/gov%E2%80%99t-secures-agriculture-for-food-secure-future>

미상 수용에 문제가 없으나 ‘안보’의 원형적 의미를 상실한다. 결론적으로 ‘food-secure future’에 대한 번역은 c와 같이 이 어구를 ‘future food security’로 변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표적 연어의 구성은 경제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거품붕괴/bubble burst’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걸히다’ 혹은 ‘꺼지다’와 연어를 이루는 ‘거품’은 경제 관련 맥락에서 ‘실속이 없이 걸(가격)만 부풀려진 상태에서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은유로서 기능할 때만 ‘붕괴(되다)’와 조합되어 비통상적인 연어를 이룬다. 한편 일반적으로 ‘붕괴’는 ‘체제,’ ‘축대,’ ‘댐,’ ‘건물’ 등 어떠한 조직이나 구조물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왜 맥주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고 ‘왜 맥주 거품은 쉽게 붕괴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는 유머나 기타 화자가 의도하는 특정한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일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상황에서 ‘bubbles’는 ‘액체의 방울이 터짐’을 지칭하는 ‘burst’와 ‘붕괴하다’와 ‘사라지다’의 의미인 ‘collapse’나 ‘disappear’ 등과 연어를 이룬다는 점에서 ‘bubble burst’는 경제적 맥락과 일반적 맥락에서 연어의 구성이 모두 무표적이다. 예컨대 ‘I’m waiting for the beer bubbles to burst’라는 발화는 맥주회사의 주가에 낀 ‘거품’이 걸히면 투자 적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고, 맥주 거품이 사라지면 맥주를 먹으려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예들에서 연어의 패턴은 문화 특수적이고 맥락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bubble burst’와 ‘거품붕괴’는 경제라는 제한적 맥락의 은유에서 지시물을 공유하는 대응어로서 해당 맥락에서 무조건적으로 상호 치환될 수 있는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3.3. 대응과 등가, 그리고 중심의미의 차이

윌리엄스와 체스터먼은 두 텍스트 요소간의 형태적, 기능적 동등성을 ‘대응’으로, 그리고 실제 발화, 혹은 언어 사용 예 간의 관계를 ‘등가’로 정의하였다(50). 본 단원에서 살펴 볼 시사용어 대응어들은 복합어를 구성하는 영어 어휘와 한국어 어휘 간의 축어적 대응 관계나 기능적 동등성은 없지만 복합어를 하나의 단위로 볼 때는 동일한 사물이나 개념을 지시하는 것들이다. 용어의 중심

의미나 중심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각각 다른 관점을 반영하는 구성은 동일 언어의 유의어(類義語)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예컨대 우리말의 ‘감시카메라’나 ‘CCTV’에 대응되는 영어 어휘들은 ‘street camera,’ ‘surveillance camera,’ ‘security camera,’ ‘closed-circuit TV camera’ 등 다양하며 각각 ‘camera’라는 지시물과 이것의 ‘장소(street),’ ‘목적(surveillance, security),’ ‘메커니즘(closed circuit)’에 초점을 두고 어의가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물론 ‘street camera,’ ‘surveillance camera,’ ‘security camera’는 모두 ‘closed-circuit TV’라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동일한 장치를 지시하며 각 용어가 맥락에 따라 언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관점을 반영하는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동일한 지시물을 지시하지만 구성 어휘 간의 기능적 범주와 용어의 중심의미가 상이하여 그 지시물의 개념을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응어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매년 신년을 맞아 국정 전반에 관하여 의회에서 발표하는 담화를 지시하는 ‘State of the Union Address/연두교서’가 포함된다. ‘State of the Union’의 축어적 의미는 ‘연합의 상황’에 가깝다. 따라서 ‘State of the Union Address’는 축어적으로 ‘연합(미국)의 상황에 대한 연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각 주(州)는 주지사가 하는 ‘State of the State Address’가 있으며,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State of the Nation Address’라 한다. 모두 행정 전반에 관한 보고 형식의 담화를 지시하는 용어들로서 윌리엄스와 체스터먼의 구분에 따르면 우리말의 ‘국정연설’과 ‘대응’ 관계에 있다. 아래의 예8과 같이 미국의 헌법은 연방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기타 필요한 상황을 ‘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통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8)

대통령은 때때로 연합의 상황(State of the Union)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제안하여 의회가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⁸⁾ (연구자의 번역)

8) 미 헌법 제2장 제3조(Article II, Section 3), <http://www.usconstitution.net/const.html#A2Sec3>

이에 반하여 ‘연두교서’의 중심의미는 ‘연초에 의회에 제출하는 교서,’ 즉 매년 해가 바뀌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풀이된다. 이와 같이 지시물의 실질은 동일하되 표현 형식에서의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두 용어가 통상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맥락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이 상호 일대일 치환이 가능한 등가어로서 기능하는 점은 언어가 언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약속에 의해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좁은 의미로는 ‘기업체의 인수·합병 시에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를 의미하는 ‘due diligence/(기업)실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콜린스영영사전』은 ‘due diligence’를 구성하는 두 어휘의 의미를 아래의 예9와 같이 수록하고 있다.

예9)

- a. due: suitable or right in the circumstances
- b. diligence: careful and thorough work or effort

위 예에서 보듯이 ‘due diligence’의 원형적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서 적합하거나 옳은 일을 세심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 혹은 그러한 노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가 지시하는 바와 같이 그 의미영역과 사용 예는 실로 매우 광범하다. 아래의 예10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 ‘due diligenc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1933년 미연방증권법(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제7조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예10)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가 독립적으로 [위험 회피를 위한] 적절하고 세심한 노력(due diligence)을 기울이는 데 필요한 경우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인이 최소한 자산 관련 자료나 차입금 관련 자료를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⁹⁾ (연구자의 번역)

위 법조문은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관한

9)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http://www.sec.gov/about/laws/sa33.pdf>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어 투자자가 독립적으로 위험 회피와 주의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절차(due diligence)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보면 ‘due diligence’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해외 거래에서든, 혹은 일반인의 투자나 거래에서든, 그리고 관리 책임과 지식이 있든 없든, 그리고 투자자나 피투자기업, 혹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주어진 상황에서 응당 기울여야 할 주의’를 의미하는 셈이며,¹⁰⁾ 그 의미에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와 관련한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due diligence’가 폭넓은 의미영역을 갖는 이유는 ‘due diligence’가 어떤 행위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과 본질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의 우리말 대응어 ‘(기업)실사’는 기업의 재무 활동과 관련한 맥락에서 ‘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하는 피인수기업의 자산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를 지시하는바, 이 용어는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의미의 핵심을 이룬다. 결국 ‘due diligence’와 ‘(기업)실사’는 실질과 형식의 대응인 셈이다. ‘due diligence’가 협의의 의미를 갖는 경우 두 용어는 동일한 지시물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번역 시 상호 대체가 가능한 등가어로서 기능하지만, 그 중심의미와 의미영역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해당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른 관점을 바탕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함을 추정할 수 있다.

4. 결론

이제까지 ‘대응’ 관계와 ‘등가’ 관계를 모두 충족하는 영어와 한국어 대응어와, 중심의미는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동일한 사물이나 개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어와 한국어 어구의 의미 측면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을 시사 분야로 영역을 한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용어들은 제한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대체적으로 다소 전문성을 띤 용어들이거나 서구의 용어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10)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줄인 말인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와 대응되기도 한다.

유입된 것들이기 때문에 번역 상황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상호 치환되어 사용될 수 있는 ‘확립된’ 번역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동일한 기능적 범주를 가진 어휘가 병렬되는 구조의 경우 영어와 한국어 용어가 어순과 어순의 고정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예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어휘의 원형적 사용 예를 벗어난 유표적 구성을 통해 의미상의 특별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흔히 등가어로서 취급되지만 중심의미가 상이한 용어와, 특히 그 의미상 ‘행위’의 실질과 형식이 대비되어 그 의미영역의 포괄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대응어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시사 분야의 텍스트에서 흔히 언급되는 영어와 한국어 용어들의 대응어가 갖는 의미 요소의 차이와 언어 사용자의 관점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번역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다. 포괄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이 끊임없이 태동하며, 이에 따라 번역어도 끊임없이 생성되는 오늘날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견지하는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그 외연을 더 넓혀 심도 있게 진행된다면 외국의 생소한 개념을 지시하는 이른바 ‘버즈워드(buzzword)’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를 조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현권 옮김 (1996)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 어문학사. (Carol Sanders (1979)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Saussure*, Paris: Hachette.)
- 박재양 옮김 (1987) 『언어의 이해』, 서울: 시인사. (Victoria Fromkin & Robert Rodman (198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심재기 · 채완 (2002) 『언어와 의미』,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정연일 (1999) 「번역에 있어서의 효과의 등가성과 번역손실」, 『통번역학연구』 3: 113-26.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Fillmore, Charles J (1982) 'Frame Semantics',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111-37.
- Halliday, Michael A K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John Lyons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140-65.
- Hatim, Basil & Maison, Ia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 Nord, Christiane (1991)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 Rodopi.
- Sapir, Edward (1958) 'Language and Environment', In David G Mandelbaum (ed) *Sel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in Language, Culture, and Re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89-103.
- Whorf, Benhamin L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Boston: The MIT Press.
- Williams, Jenny & Chesterman, Andrew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Abstract]

A Contrastive Semantic Analysis of English and Korean News Terminology

Joo, Jinkook
(Keimyung University)

Every language is the mirror that reflects its users' perspective from which to look at the reality surrounding them. This is because languages structuralize and organize the world of our experience and more or less influence the way we perceive the objects and notions that exist in the real or an imaginary world. Naturally, this proposition implies the fact that the ways language users in different language communities perceive objects and notions may be radical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ir cognitive categories. Therefore, it seems to be a meaningful task to examine and compare the meanings of certain less context-dependent terminology in Korean and/or English and their translation equivalents. Such a study can not only increase our knowledge of how translation works but also help translators find a suitable translation equivalent of a novel concept expressed in a foreign language. It is for this purpose that some perspectives regarding the meanings of a limited number of terminology found in either English or Korean news materials and their Korean and English translation equivalent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 Key Words: news terminology, corresponding words, prototypical use (meaning), correspondence, equivalence

주진국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전임강사

joojkook@kmu.ac.kr

관심분야: 텍스트 유형론, 담화텍스트론, 전문 문서 번역

논문투고일: 2011년 0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1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09일